



## 위조서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걸림돌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방문을 희망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자 브로커들이 비자 신청자에게 접근하여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니 서류를 위조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로커들에게 비자신청을 맡기지 마십시오.. 실제로 미국 비자 신청자 중 96% 이상이 비자를 발급 받고 있으니, 비자 브로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조서류로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위조서류를 폐기하시고 실제 본인의 서류로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브로커들을 통해서 서류를 위조할 경우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지며,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 국가가 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저희는 가능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길 바랍니다. 본인의 서류를 사용하여 저희 직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저희는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DO NOT LET FRAUD DELAY THE VISA WAIVER PROGRAM

*From Ambassador Vershbow*

Thanks for visiting our website. We are happy that you want to visit the United States, but we want you to be careful. Visa brokers might try to fool you and tell you how hard it is to get a U.S. visa so that they can sell you fake documents. Do not let these people make your application fraudulent. The truth is that we approve more than 96% of all applicants, so you should not believe the visa brokers and their scare tactics.

If you try to deceive my staff using fake documents, you may be barred from enter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rest of your life. If you think there is even a small chance somebody might have given you fake documents, throw them away and apply with your genuine documents.

Working with fraudsters will hurt your chances of getting a U.S. visa, and these fraudsters are hurting Korea's chances of entering our Visa Waiver Program. We want as many Koreans as possible to visit the United States. Be honest so my staff can help you. Together, we can help Korea move toward joining the U.S. Visa Waiver Program.